

사회

기업이 비용 댄 도서벽지 어린이 영어캠프 공무원 자녀 등 65명 '새치기'

도시 초등학생도 상당수...전남도 실태조사 착수

KB국민은행이 영어를 접하기 힘든 도서벽지 어린이를 위해 후원한 영어캠프에 전남지역 공무원 자녀가 상당수 참가한 것으로 밝혀져 지역주민들의 비난이 거세다.

일부지역에서는 대상자가 아닌 일반 초등학생도 학부모가 아닌 일반 초등학생 학부모가 다수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저소득층 아닌 공무원 자녀가 참여=완도교육청은 25일 "지난 1월 '겨울영어캠프'에 참여한 33명의 완도지역 학생들을 확인한 결과, 모두 3명이 완도군 소속 공무원 자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완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남도에서 지난해 12월 21일 공문을 보내 23일까지 학생을 추천해 달라고 했다"면서 "겨울방학인 탓에 마감 내에 학생 모

집을 하지 못했으니, 어떤 경로로 학생이 추천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참여자들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군에 배정된 11명 중 8명을 군청과 읍·면사무소, 교육청·경찰서·소방서 등 공무원 자녀로 제쳤다. 특히 군청 한 공무원은 자녀 2명이 이 캠프에 보였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월 11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서 '도서·벽지 어린이' 초창 겨울영어 캠프를 열기 위해 전남도를 통해 학생 추천을 받았다.

도는 신안, 여수, 고흥, 구례 등 16개 시군에 초등학생(3~6학년) 200명을 배정했다.

이 캠프는 1인당 참가비 45만8천원 전액을 후원사가 부담하는 등 파격적

인 조건인데다 영어체험은 물론 문화탐방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인기가 높았다.

◇도서·벽지 학생이 아닌 도시 초등학생들=영어를 접하기 어려운 환경의 도서·벽지 초등학생에게 캠프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영어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와 달리, 참여학생들 상당수가 일반 초등학교 학생인데다, 저소득층 자녀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캠프참가학생 200명 중 65명(32.5%)은 도서벽지 학생이 아니었으며, 이 가운데 42명은 저소득층 학생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도서·벽지 초교 아이들이나 저소득층 자녀들은 캠프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여수의 경우 39명의 참여학생 중 22명이 일반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로 밝혀졌고, 고흥은 11명 중 9명, 완

도는 33명 중 12명, 진도는 20명 중 17명이 일반 초등학교 아이로 채워졌다. 이외 순천(10명), 장흥(2명), 해남(4명), 무안(2명), 광양(3명) 등도 참여자가 도서·벽지 초등학생이 아닌 것으로 전남도와 교육청은 파악했다.

반면, 화순·보성·목포·신안·담양 등은 모두 도서·벽지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접하기 어려운 환경의 학생을 선발해 대조를 보였다.

◇부실 업무 처리 영종 문책=전남도는 해당 시·군의 영어캠프 참가자 선발 과정이 부실하게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고흥군은 25일 영어캠프에 공무원 등의 자녀를 추천해 물의를 일으킨 담당 계장을 좌천 인사조치 하고 나머지 실무자와 과장 등도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할 계획이다.

/김지음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보성 어부·영암 연쇄살인범 항소심서도 "사형"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합헌 결정 이후 속행된 '보성 어부 살인사건'과 '영암 연쇄살인 사건'의 피고인 2명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원심으로 사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장병우)는 25일 자신의 배에 탄 여객객 4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어부 오씨(7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오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오씨는 2008년 2월 13일에서 사형을 선고받자 사형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했으나, 현재가 지난달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지난 2007년 8월 31일 보성으로 여행은 10대 남·여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운 뒤 여성을 성추행하기 위해 남성을 바다로 밀어 숨지게 하고 저항하는 여성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했다.

이어 오씨는 같은해 9월 25일에도 자신의 배에 탄 20대 여대생 2명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

다.

재판부는 또 이날 내연녀와 의붓딸, 아내의 조카 등 3명을 연쇄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이모(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으로 사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5일 영암군 자신의 집 등에서 동거녀의 조카인 A(당시 16세)양을 성폭행한 뒤 여행용 가방에 가둔 채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다녀 A양을 숨지게 했다.

이어 이씨는 1주일 뒤 의붓딸 B(19)양을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동거녀(41) 마저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책임정도, 범죄와 형벌사이의 균형, 사회보호 등의 차원에서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오씨와 이씨가 사형을 선고 받음에 따라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사형수는 59명으로 늘게 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세입자 울린 임대사업자 구속

광주남부경찰은 25일 임대한 아파트의 은행 대출금 등을 갚지 않고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사업자 이모(4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3~9월 광주·전남에서 대출 등을 통해 아파트 800여채를 사들여 임대사업을 해오던 중 회사 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김모(39)씨 등 59명으로부터 26억여원의 임대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남매가 싸고 男 째질방 유인해 털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과 째질방에 간 10대 여성이 남동생과 싸고 상대 남성의 옷장을 털다가 경찰서행.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김모(19·북구 중흥동)양과 김양의 동생(18)은 지난 21일 오전 9시20분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 한 째질방에서 방금 30만원을 훔친 뒤 현금 30만원을 훔친 혐의.

○~경찰 조사결과 김양은 범행 몇 시간 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방씨와 B째질방에 간 뒤 방씨가 잠들자 같은 째질방에 있던 동생에게 연락해 돈을 훔치도록 했는데, "음료를 사 먹던 중 방씨의 지갑에 돈이 많은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렸다"고 진술.

/이종형기자 galee@

11억대 메신저 피싱 넷 구속

전남경찰, 400여명 피해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인터넷 메신저 상에서 지인으로 가장해 10억대의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문모(35·서울시 양천구)씨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13일 회사원 박모(여·37)씨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6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400여명으로부터 1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속칭 '작업조'가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을 해킹한 뒤 친구나 가족 등을 가장해 메신저 상에서 송금을 요구해 입금되면 이를 국내 은행에서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3개월간 가로챈 금액이 같은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메신저 피싱' 총 피해금액(26억원)의 절반에 이른다는데 점에서 주범 등 '작업조'와 대포통장 모집책 등을 검거

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외상술 먹여 선원으로 팔아

해경, 직업소개업자 구속

여수해양경찰은 25일 장애인·노숙자 등에게 술을 제공한 뒤, 술값을 팔지 못하자 전남 섬지역 선원으로 끌어들여 돈을 가로챈 직업소개업자 임모(51)씨를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모집책 김모(52)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임씨 등은 지난해 5월 정신지체자인 이모(51)씨를 자신의 술집으로 유인, 80만원 가량의 술을 먹인 뒤 이를 팔지 못하자 130만원을 받고 신인의 여선 선원으로 판 혐의다.

임씨는 선원생활에 풀려난 이씨에게 또다시 접근해 1천만원 상당의 토지를 가로챈 등 장애인·노숙자 11명을 상대로 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이청 장성군수 직위 유지

고범, 벌금 90만원 선고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장병우)는 25일 군청 예산을 불법 집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청 장성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선거범죄의 경우 100만원 미만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선거법에 따라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것은 명백하지만, 지역 축제에 대한 홍보를 잘 해 보려는 취지였고 10년 이상 이뤄져 온 관행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해 5월 지역 축제를 앞두고 지역 신문 기자들에게 1천630만원을 집행하는 등 최근 2년간 3차례에 걸쳐 4천800만원 가량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다문화가정 여성들 선거 체험

성 유권자들이 투표를 해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광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마련한 '다문화가족 여성 선거체험교실'에 참여한 여성 유권자들이 투표를 해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은행 현금인출기 코너에 강도

10만원 빼앗아 도주

지난 24일 밤 9시40분께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한 은행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20대로 보이는 남성이 현금인출하던 박모(여·47)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현금인출기 코너에 설치된 CCTV에 담긴 키 160cm~170cm에 마스크를 쓴 20대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동종전과자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지문 등 단서가 될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광주에서는 올해 10여건의 편의점 강도가 발생해 4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심속 강도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7.9 공무원은 경찰직

합격 전문학원 **합격이면 합격은 쉽고 할라집니다!**

→ 2009년 입사, 연봉 474만 원까지 보장! 합격비 100만 원, 봉급에 100만 원, 70% 합격률 보장!

→ 2009년 입사, 연봉 474만 원까지 보장! 합격비 100만 원, 봉급에 100만 원, 70% 합격률 보장!

→ 2009년 입사, 연봉 474만 원까지 보장! 합격비 100만 원, 봉급에 100만 원, 70% 합격률 보장!

개강! 매월 1회 **평방직/교육평방직/사무직** **나일귀반**

검정직/소방직 전문 **국어: 송태웅 선생님**

경찰직 **서울경찰전문학원 | 251-79591**

서울고시학원 | 서울고시학원 | 서울고시학원

의사/약사가 되는 길

합디패스 의학원!!! 합디패스 약학원!!!

합디패스 의학원!!! 합디패스 약학원!!!

PEET/ MEET/ DEET

합디패스 의학원!!! 합디패스 약학원!!!

합디패스 의학원!!! 합디패스 약학원!!!

합디패스 의학원!!! 합디패스 약학원!!!

합디패스

합디패스

서울고시학원

514-4560

kgsol.co.kr

MDP Pass

합디패스

합디패스